

신입생을 위한 캠퍼스 적응, 지도 프로그램 - 명예교수 멘토링

주지하다시피, 서울대학교는 금년부터 법인화되어 국립대학의 틀에서 벗어났다. 그 공과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수들에게는 대학이 더 이상 고차원적인 담론만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곳이 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날의 우리 대학들은 교수로 한 번 임용되면 그것이 평생직장으로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연봉 상승이 보장되는 안일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대학 사회도 냉혹하게 성과로 입증되는 결과물만이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의 논문 게재 등 객관적인 잣대로 연구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하였던 이공계 대학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연구업적 평가에 따른 결과가 관행적인 연공서열을 파괴하곤 하였지만, 법인화된 이후에는 전 학문 계열에 걸쳐서 대학은 이와 같은 성과 위주의 평가를 수용해야 할 경쟁체제로 신속히 전환될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업적을 낼 것인가, 파멸될 것인가(publish or perish!)라는 표어 아래 더 많은 연구업적을 내지 못하면 대학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철칙이 세워져 있었다. 우리 대학 교수들도 생존을 위해 이제는 더 철저하게 시간을 쪼개어 업적 쌓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적어도 대학에서 연구업적을 내는 일이 교수자격 평가의 제일가는 기준이 되고 있는 한, 강의나 학생 지도 등은 차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 점을 주목한 대학은 연구와 함께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강의에 대한 평가에도 힘을 기울여 뛰어난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상도 겸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논문으로 평가되는 연구 활동의 지원 못지않게 좋은 강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의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

이인규
서울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고, 아울러 그 성과가 연구 논문에 못지않은 교수 업적으로 평가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이처럼 연구나 강의 실적에 매달리게 되면 될수록 대학 교육의 또 하나의 축인 학생지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날의 서울대학교는 전국 학력 평가에서 최상위 집단의 학생들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는 입시체도로 인하여, 전국의 최우수 학생들을 모두 휩쓸어 왔고, 이로 인하여 타 대학의 질시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그런 입시 체도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사 관리를 하지 못할 때는 전적으로 해당 학생 자신의 나태함이나 학교교육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시간낭비 때문이라 평가하였고, 그러기에 대학은 그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머뭇거리거나 기다리지 않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교육행정을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다. 대학생들은 성인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 연령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이 이러한 신입생 선발 방식을 탈피한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입시 전형이 개발되어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기초 학문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양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육이 과거처럼 우수 학생을 위한 승자의 잔치로 방치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대학 당국도 이러한 사태를 실감하고 기초실력이 부실하거나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여 학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신입생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아, 이들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장치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못하고 있는 신입생들도 허다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의 필요성이 절감하다는 사실을 체험한 바 있다. 그것은 지난 학기 동안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의뢰를 받아 우리 명예교수 몇 분들과 함께 이처럼 대학생활에의 적응과 진로선택을 고심하는 신입생들에 대한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신입생은 지방에서 올라왔고 대학에서 부딪친 첫 과제는 강의 선택이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신청한 강의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한 학기를 명문대학에 입학한 흥분으로 친구들과 휩쓸려 지나다가 받아든 1학기말 성적에 대한 충격,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에 입학할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졸업 후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적인 형편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얻기 위한 방안의 모색 등 허다한 숙제들을 안고 있었다. 지난 학기 동안 CTL의 문을 두드려 명예교수들과 만난 신입생들이 지닌 대학생활의 고민들이 큰 틀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것들이었지만, 개

별적으로는 매우 다양하여 1:1의 멘토 없이 구체적인 해결 대책을 찾기 어려운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신입생들이 지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알리고자 쓰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720명이 넘는 명예교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600명이 넘는 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70대 이하의 젊은(!) 교수들이다. 서울대 명예교수는 적어도 20년 이상 대학에서 봉직하였고,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쌓고 은퇴하였기 때문에 대학이 평생 명예교수로 추대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대학이 지닌 자랑할 만한 인적 자원이고 활용해야 할 지적 자산이다.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 또는 학문 영역별로 명예교수들을 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명예교수들을 위한 독립 건물인 연구동을 마련하고 있으며, 70명에 가까운 명예교수들이 이곳을 활용하며 각종 연구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년 후까지 이처럼 대학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활동보고서를 회보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이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들이 지닌 지적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 대학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학제 간의 다양한 틈새 학문 영역을 개발하고, 빠르게는 40대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연령층의 퇴직자들이 여생을 위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3기 인생대학(정년 후 새로운 취업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오늘의 대학 현실처럼 과중한 연구와 교육의 업무로 인하여 현직 교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들도 대학생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별적인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멘토링 사업은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신입생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차후 학부생 전원에게 그 문호를 개방하여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 영역의 원로 교수들을 만나서 학문적인 미래나 인생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도화 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명예교수들은 언제나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여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깊이와 무게가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크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인이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선망과 질시는 우리를 늘 부담스럽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의 근대사를 이끈 주역의 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이 대학을 통하여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자 입학한 신입생들이나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한 기대 또한 한없이 커서, 이들 모두가 결코 좌절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모두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비록 우리 대학생들 못지않은 실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한을 품고 있을 그 누군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보답이기도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1학기] Learn how to learn 학습법 시리즈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법 시리즈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일시
1탄	학습전략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시간관리와 노트필기 전략, 학습유형검사를 통한 학습전략 찾기	3월 3주
2탄	의사소통능력	공감 스피치, 발표자료 제작, 프레젠테이션 전략, 집단 토론 전략	4월 1주
3탄	영어강의 수강전략	영어강의 수강전략, 영어 글쓰기 전략,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략, 영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외국인 선배가 알려주는 학습 코칭	5월 3주
4탄	양적연구방법론	조사연구의 기초 분석, 양적연구를 위한 PASW18 기초 실습	6월 3주
5탄	저학점자를 위한 학습 코칭		8월 4주

※ 강연일정과 세부주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 청]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snu.ac.kr>)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CTL 학습 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SNU 학생 여러분의 학업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유형	
심리검사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학습 포털 게시판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방문 상담	나만의 학습 어드바이저와 함께 주 1회씩 목표기간동안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상담 신청]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 포털(<http://learn.snu.ac.kr>)

[상담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03호), 880-4027, snulearn@snu.ac.kr